

성역없는 진상규명 됐다... 유병언 로비의혹 끝내 못밝혀

대검 세월호 수사 일단락...과제와 의문점

123정장 이례적 형사책임... '언딘' 특혜 확인 구조적 비리 밝히기·몸통 수사는 미흡 지적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진 것일까.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구조적인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건가.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뚜렷하게 나뉘어진다.

◇초유의 국가기관 형사 처벌 "의미" = 검찰이 6일 발표한 수사 결과 중 여태껏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된 사실은 목포해경 김모(53) 123정 정장에 대해 구조활동을 잘못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한 점이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를 벌이면서도 구조 조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 기소하는 게 타

당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무능'했을 뿐 고의성이 없는 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사고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 등 선내 승객 구조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으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언딘 마린인더스트리 '특혜' 확인 = 검찰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를 둘러싼 의혹 중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최 차장 등은 친분 관계에 따라 평소에도 언딘에 해상 선박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침몰 사고 이튿날인 4월 17일 새벽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준공이 안돼 출항이 금지된 바지선(리베로호)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목포해경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울면서 거부했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압박·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세월호 현장에 언딘 소유 리베로호가 현장에 도착하기 30시간 전 2배

크기인 현대 보령호가 대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리베로호(1100t급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바지선도 1~2시간 거리에 22척이나 머물렀음에도, 언딘 투입에만 골몰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수백명의 승객 구조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빠른 투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딘에 이권을 쥌려주려고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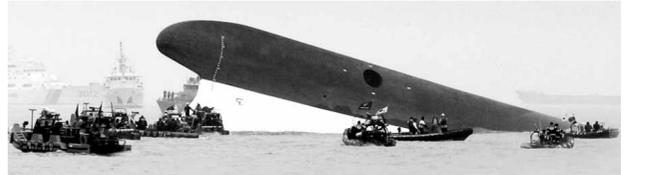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언딘의 평소 '관리' 정황도 소개했다. 최 차장은 2009년께 다른 해양경찰관의 소개로 언딘 대표 김모씨를 알게 된 뒤 정기적으로 저녁모임을 가졌고 명절에는 정기적으로 올린 흥대개, 송이버섯 등을 받아 챙겼다.

◇유병언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없다'? =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억 골프채' 의혹의 경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씨가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실 투성이인 세월호가 제대로 된 안전 점검도 없이 오랫동안 맞물려온 채로, 유씨의 정·관계 인연 등이 맞물리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나 몸통을 향한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빌건 대낮에 수백명이 바다 속에 갇히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한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사 분야	수사 현황
선박 침몰 및 구조의무위반 책임 (김·경 합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수사 청해진해운 본사 임직원 수사 하역업체 부실고박, 운항관리자 부실 점검 구명뗏목 점검업체 임직원 비리 중톤(개조) 및 안전 검사 문제점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상의 부실 책임 (김·경 합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해진해운 전·후 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2명 구속)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前)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 등 뇌물수수 안전항만청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해경 123정장 불구속 기소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3명 불구속 기소
사고 후 조치 과정의 문제점 (광주 전담수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경·언딘 유착 의혹 청해진해운·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유병언 일가 등 도피 사범 추적 한국해운조합 비리 (인천) 한국선급 등 비리 (부산) 기타 해운비리 (전국 9개청)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인천 특별수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계열사 임원 14명 구속 기소 (유병언은 공소권 없음 처분)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5명 구속 프랑스에서 유심사 검거, 미국에서 김해경 검거 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소홀, 선박사고 손해사정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前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20명 구속 선박검사 관련 금품수수, 한국선급 감독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형용 제공 등 유착 비리로 前 한국선급 회장 등 18명 구속 상습 화물 과적, 정부 보조금 편취, 감독 무마 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50명 구속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인천·부산 특별수사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선급 등 비리 (부산) 기타 해운비리 (전국 9개청)



농산물 학교급식 점검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직원들과 시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6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인 두암중학교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쌀 사용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검찰 "세월호 폭침설·국정원 개입설 사실무근"

'의혹설'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은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뒤 제기된 온갖 의혹과 관련, '해소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암초 충돌설'을 비롯, '국정원개입설', 'CCTV 조작설' 등에 대한 의혹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며 의혹 해소에 주력했다.

▲세월호 침몰 방송 화면에 나온 선체 오른쪽 바닥의 움푹 파인 흔적으로 제기된 잠수함, 암초 등과 충돌설은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사전예비점검 시 지적사항(2013.2.26.~27일)이 확인됐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세월호 이외에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

잠수함·암초 등 충돌설 도색 변색·탈색으로 발생한 것

CCTV 조작설 실제보다 18분 빠르게 표시

시한 점 등으로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123정이 탑승자 명단에 없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가장 먼저 구조한 뒤 제기된 폭파설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원으로,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대조해 확인했고 폭발 흔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진 시각이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인 08 : 48경 보다 18분 가량 빠른 점 등으로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 가량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의혹의 경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했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딘 협력업체 관계자도 투입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민간잠수사 투입을 막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학생이 불붙은 컵 던져 차량 훼손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이 붙은 플라스틱 컵을 장난 삼아 밖으로 던져 차량을 훼손한 철부지 중학생이 경찰서행.

○...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운모(13)군은 지난달 30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불이 붙은 종이 등이 든 플라스틱 컵을 밖으로 내던져 송모(52)씨의 승용차 보닛을 훼손한 혐의.

○...운모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제미심이 불장난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

/박기용기자 pboxe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800만 수익발생
매가 13억 (보2억 용5억)
-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영신중고교, 대덕 APT앞
건물 135평 1.2층 80평(2간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보증금3천 월 200만원 용1억) 매가 2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용1억8천)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매가 3억1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 북구 오흥동 8층 건물 1층 상가 58개 삼성전자 앞 (보증금 2억, 용15억)
오피스텔 (월세 3000만 수익) 매가 35억

(주)대신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군/리/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 건11031㎡) / 감정가 16억1천 / 최자가 11억3천 (신건1회)투자적합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82.57㎡) / 감정가 24억 / 최자가 13억8천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오치동 (토지378.9㎡, 건658.25㎡) / 감정가 5억 / 최자가 3억5천 (유할3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1094㎡, 건4489.1㎡) / 감정가 41억 / 최자가 18억 (유할7회)투자적합
군/리/읍/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서구 금곡동 (토지197㎡, 건362㎡) / 감정가 3억8천 / 최자가 3억8천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 감정가 1억6천 / 최자가 9천2백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유동 (토지229.7㎡, 건606.69㎡) / 감정가 13억8천 / 최자가 2억1천 (유할2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유암동 (토지89㎡, 건72.74㎡) / 감정가 7천2백 / 최자가 4천 (유할3회)투자적합
속/박/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서구 광현동 (토지235㎡, 건980.38㎡) / 감정가 7억9천 / 최자가 4억3천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 감정가 2억7천 / 최자가 1억5천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1182.4㎡, 건2289.6㎡) / 감정가 32억 / 최자가 18억 (유할2회)투자적합 여주시 물산읍 (토지67.3㎡, 건985㎡) / 감정가 52억 / 최자가 24억 (무인텔)투자적합
오/포/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6.6㎡, 건24㎡) / 감정가 2천4백 / 최자가 2천4백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8㎡) / 감정가 3억5천 / 최자가 1억 (유할5회)투자적합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광산구 하남동 (토지1734㎡, 건2635㎡) / 감정가 14억 / 최자가 8억(유할1회)투자적합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 감정가 44억 / 최자가 44억 투자적합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767㎡) / 감정가 1억3천 / 최자가 7천3백 (유할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영, 설계, 부동산관련 전례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직격중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주)대신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후분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신축원룸매매

- 전대상대 교통공단 5분 룸14개(주인세대1개) 매가 6억4천
- 전대 상대 1분 룸12개 매가 6억 (호반APT앞)
- 전대 정문 1분 룸18개 (상가1층 2칸 만실) 월수익 700 매가 8억 4층 코너
- 전대정문 1분 룸19개 4층 주택 1개 엘리베이터 완비 월수익 800 매가 12억

062)527-7600

상가 임대

상가 임대

- 2층 상가임대 25평 전대정문 2분 모야APT앞, 사차선 대로변 내부시설 완비 즉시 입주, 관리비 없음 (보300, 월38만) 시설약간있음
- 커피숍 중심사 1층임대 80평 개국적합, 중심상업지역 가능 길 (시설약간있음) (보3천, 월300만)
- 노래방 임대 상무지구 지하 80평 룸7개 (시설3천만) (보5천, 월150만)
- 중화요리 임대 상무지구 1층 80평 월수익 2천만 거래처 인계함 (보5천, 월200만)
- 상가임대 물건다량있음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수익상가)

오피스텔 매매(수익상가)

-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텔)6층(48평) 천변쪽 방향 전망좋은 내부시설 올리모델링완비 즉시입주(임대가능, 보 1천 월70만, 용5천) 48평 매가 1억3천 ▶ 1억1천만
- 서구 상무지구(수림오피스텔)6층(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보 300만, 월33만, 용1천3백만) 매가 5천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19평 내부시설 완비, 즉시입주가능 (보 500만, 월45만, 용2천2백만) 매가 8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2층(11평) 원룸형 운전석 2분 내부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가격으로 원룸을 매입 월세로 노후 보강가능 (보 200만, 월27만, 용1천만) 매가 3천5백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정연오피스텔)3층(30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한국은행 앞 현대 APT맞은편 (보 1천만, 월70만, 용8천만) 매가 1억1천만
- 수완지구 1층(19평) 대방 5차 APT 후분 (보 3천만, 월13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완지구 3층(85평) 한술빌딩 신한은행 뒷 모야엘가 A37앞 (보 3천만, 월20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완지구 3층(62평) 엠스타 롯데대 옆 (보 2천만, 월150만, 용9천만) 매가 2억5천만
- 수완지구 2층(62평)대상오션스파 부영 APT 앞 (보 1천만, 월70만, 용9천만) 매가 1억7천만

신한 010-6832-9700